

두 여성 학교상담사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Exploring the Narrative of Child Care Experience of Two Female School Counselors

최은주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통합의학과 가족상담

Eun-Ju Choi(sokuk2201@naver.c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연구방법인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학교상담사의 삶 속에서 자녀양육 경험은 어떠하였으며 자녀양육 경험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탐구하는 데 있다. 연구를 위해 8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학교상담사로 근무하며 자녀를 청소년 시기에 양육한 경험이 있는 두 명의 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인터뷰를 거쳐 다음과 같이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공간이라고 지칭되는 시간성·사회성·장소에 집중하여 학교상담사들의 자녀양육 경험을 구성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상담사들은 원가족에게 양육 받은 경험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통찰” 하였다. 상담공부 후 훈육과 강압적인 태도로 양육한 것에 대해 “반성과 사과”의 과정을 거쳐, 자녀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충분히 좋은 양육자 되어가기”를 탐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체험적 통찰을 통해 “진정한 상담사로 거듭나기”로 변모해 가고 있었으며, 이는 “온전히 기능하는 나”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 중심어 : | 학교상담사 | 학교상담 | 자녀양육 | 내러티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perience of child rearing in the life of school counselors and what this experience signified to them based on the narrative,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For this study, two women who have at least eight year long experience, who work as school counselors and who have the experience of rearing their children during adolescence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They were subjected to interview and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were drawn out. School counselors' child rearing experience was composed by focusing on the time, society and place, which are referred to as the Three-dimensional narrative investigation space. School counselors “discerned” that the experience of getting reared by original family exerts effect on children. After counseling study, they wished to “become a sufficiently good rearer” who strives to cultivate ideal parent-child relations by understanding their children after undergoing the phase of “self-reflection and apology” for discipline and forced attitude. Moreover, they were transforming into “genuine counselor” through experience based insight, and this in turn includes the meaning of “I, who function intactly.”

■ keyword : | School Counselor | School Counseling | Child Rearing | Narrative |

I. 들어가기

양육이란 부모가 넓은 의미에서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는 돌봄과 함께 사회화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 가족이 속한 광범위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다각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이다[1]. 따라서 그들이 속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역할에서 요구되는 유능감을 발달시키기 위해 부모들은 노력하게 된다[2].

자녀 양육기에 있는 부모들이라면 자녀양육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학교상담사들은 '직업적으로 관련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자녀에 대한 기대와 양육에 대한 의지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직업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상담하고 조언하며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상담사로서 내담자 학부모에게 부모-자녀관계를 조언할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자녀를 잘 양육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더불어 학교상담사는 부모와 학생들을 돕는 청소년 상담 및 가족상담사로서 시대적 흐름에 민감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자녀양육에 관한 도움을 주겠다는 정보는 넘쳐나지만 실질적 정보의 획득이 어렵고, 주변 친인척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학교상담사의 자녀를 포함한 현대의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다원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내적으로는 자아정체성의 확립, 가치관의 정립을 형성하는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사회분위기나 변화에 적절히 따르지 못하는 학교교육 여건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 기본생활 습관의 결여, 공동체에 대한 이해 부족, 감각적인 성인 문화의 모방 등을 보이고 있다[3]. 이러한 현상은 교실 내에서의 정상적인 수업과 학생생활지도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학교전문상담사들은 학생과의 상담에서 상담효과를 보려면 가정의 부모와 협력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한 부분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의 원인은 가정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학교상담자는 상

담의 도구가 되어 학부모를 상담하게 되는데 본인의 경험에 의해 부모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효과를 거둔 부분을 조언하여 학부모의 자녀양육을 도와 학생의 성장에 같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학교상담사의 학생 상담과 학부모 상담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학교상담사의 상담 장면에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체득된 깨달음을 바탕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학교상담사의 자녀양육경험을 살펴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연구자가 학교상담사의 자녀양육 경험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교상담사들이 자신의 문제나 고민을 어루만져주고 치료해 주는 역할도 해 주지만, 학교 안에서는 양육대행의 역할로 부모에게서 제때에 받지 못한 생활지도와 안전하게 수용해주는 지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생의 부모입장에서는 학교와 학부모를, 부모-자녀관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교류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학교나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탈선이나 가정적 문제로부터 상담을 통해 행동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문제를 예방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상담사의 활동이나 경험들이 학교상담이라는 부분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보고임에도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학교상담사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자체가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상담사의 자녀양육경험에 관한 연구는 제 2의 부모로서 양육대행의 역할을, 교수자로서 행동의 개선과 지지를, 중재자로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상담 및 생활지도로 상담사의 역할을 가정 밖에서 수행하는 자로서의 자녀양육 경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는데 보다 중요한 정보로 재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직업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학교상담사들이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험과 함께 그 의미를 어떻게 구축해 나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상담사의 자녀양육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상담사의 자녀양육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학교상담사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며 가정에서는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 자녀로 인해 파생되는 외부의 시선을 감내하며, 양육자로서의 스트레스, 불안, 부담감 등의 부정적인 과정을 경험하기도 한다[4]. 이에 학교상담사들은 선배들의 양육 경험을 통해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자 하나 지금까지 학교상담사의 자녀양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학교 일반 교사의 양육경험을 통해 자녀를 출산함과 자녀 유년기의 양육경험을 선행연구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교교사의 양육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로 최형미, 김한별은 중등 여교사들이 엄마가 되어 겪는 경험들이 교사로서 성장하는 과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사로서 발달 경험이 어머니로서 역할 수행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호 관련성을 현상학적 연구로 살펴보았다. 여교사로서 교직경험과 엄마 됨의 경험들은 엄마로서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들은 학교에서의 생활태도와 교우관계를 강조하며 양육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의 자녀를 담당하는 '엄마 교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5].

또한 구하영은 자녀양육의 경험이 교직 생활을 수행하는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교사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었음을 밝혔고, 자녀양육의 경험이 교사의 발달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교사들의 끊임없는 성찰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6].

여기에 이항순은 자녀가 있는 기혼 영유아교사의 생애는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더불어 엄마로서의 책임감, 같은 존재이지만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는 위치와 현실에 대한 고민과 갈등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즉 영유아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엄마교사들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자아의지와 생활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과 사회적 배려로부터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혀냈다[7].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은 비단 우리나라 부모들만의

관심사는 아닐 것이다. 이에 외국 선행연구를 통해, 자녀양육에 관한 생각과 양육태도를 들여다보고 자녀양육의 의미는 어떠하였는지 살펴보았다.

Chen Xiaoxia은 미국의 중국 이민자 부모의 양육경험을 통해 사회적·문화적·개인적 환경에서 중국 이민자 부모들이 형성한 육아 경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실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중국의 이민자들은 다양한 집단이며, 개인의 부모에 대한 믿음과 여러 가지 개인적, 맥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출산으로 인한 부부간의 불화, 조부모와의 역할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문화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각 아이들의 독특한 정체성에 주의하면서 문화집단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데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렇게 된다면 이민자 학생들의 개인적인 요구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고, 이민자 가족들과 효과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녀양육 경험을 통해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사회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까지 제안하고 있었다[8].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자녀를 출산하고 영유아시기에 양육한 경험을 통해 출산과 양육이 직장에서 일을 수행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아가는 연구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상담사의 '양육경험'은 학교상담사의 생애사적 흐름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여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에 대해 시간적 흐름을 갖고, 개인적 삶의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어떠한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녀양육 경험이 시간, 공간, 상황 맥락에 따른 의미는 무엇인지 탐구하면서 어떻게 부모의 삶에 대한 통합적 인식을 발달시켰는지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현황과 참여자 소개

1.1 연구참여자 현황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성과 충분함의 원리’를 고려하여[9], 8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학교상담사로 근무하며 자녀를 청소년 시기에 양육한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동의 의사를 밝힌 학교상담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진행 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현황

참여자 (가 명)	연령	자녀	상담경력 학력	근무기관 유형
주은지	1971년생	아들: 23세 딸 : 21세	경력: 8년 학력: 박사 중	중학교 전문상담사
호이경	1965년생	아들: 26세	경력: 11년 학력: 석사 졸업	중학교 전문상담사

1.2 연구 참여자 소개

주은지는 40대 후반 여성으로, 중학교 상담사로 근무하며 아들과 딸의 중·고등학교시기를 양육하였다. 자녀 모두 이과에 두각을 나타내어 영재라는 소리를 들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이공계 최상위 대학에서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을 전공하고 있다. 평범한 가정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타고난 자녀를 키우느라 정보의 부족과 자녀 개개인의 재능에 맞는 교육을 충분히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에 힘들었다고 한다. 각자의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에 집에 온 두 자녀가 같은 주제, 관심사에 대해 대화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흐뭇하다고 한다. 이제는 자녀 양육의 힘든 시기를 지나 삶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의 전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호이경은 50대 초반의 목회자 부인으로서 학교상담사로 근무하며 자녀의 중·고등학교시기를 양육하여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가기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아들을 두고 있다. 사역을 담당하며 근검절약하는 생활에 자녀에게 풍족하게 지원해주지 못하고 키운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또한 아끼며 살아가는 습관이 익숙한 성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자녀를 키우고 나서 직장인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 그들을 지지해주고 변화시켜가는 행복한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2. 내러티브 탐구

질적 연구방법은 사건, 행동, 가치, 규범 등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관점 그리고 그를 통해 도출된 의미 경험에 관심을 가진다[10]. 따라서 연구 대상의 일반화가 목적이 아니라 경험 주제인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변화된 개별적 혹은 독특한 내용을 다룬다[11].

이에 연구 목적인 학교상담사의 자녀양육 경험은 어떠한가, 자녀양육 경험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 중에서도 내러티브 탐구방법은 개인의 삶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인의 경험뿐 아니라 개인의 경험들이 구성되고, 형성되며, 표현되고, 실행되는 범위 내에서의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내러티브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러한 경험을 넓히고 변형시키는 방법을 찾았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방법이야말로 학교상담사의 자녀양육경험을 과거에 경험된 삶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생애사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경험해오고 있는지 심층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그들의 경험을 분절적이지 않고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함으로써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판단되었다. 학교상담사의 양육경험을 좀 더 미시적이고 심층적인 탐색을 통해 자녀양육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봄으로써 이들을 다채롭게 이해하고자 한다[12]. 학교상담사들이 공통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겪고 있는 자녀양육의 경험과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그들의 경험 속에서 구성하고자 한다.

3. 내러티브 탐구의 수행과정

본 연구는 Clandinin과 Connelly가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방법 절차를 따라 수행하고자 하며[13], 현장으로 들어가,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연구 텍스트 구성

하기로 진행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연구자와 현장 텍스트를 구성하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도 참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모든 참여자들이 만나 집단으로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순환적인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연구 참여자 삶의 배경과 양육경험에서 개인적 독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현장 텍스트를 구성하고자 함이었다. 이 과정은 양육경험에 대한 이야기 조각을 맞추는 퍼즐처럼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연구 참여자와 함께 하였으며 인터뷰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표 2. 인터뷰 주요 질문 내용

인터뷰 질문지	
1	어린 시절 원가족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나요?
2	상담공부 전의 자녀양육 경험은 어떠하였나요?
3	상담공부 후 자녀의 양육경험은 어떠하였나요?
4	청소년기를 겪는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하였나요?
5	자녀를 양육하며 학교상담사로서의 경험은 어떠하였나요?
6	자녀 또래의 학교상담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떠하였나요?
7	상담사로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비전은 어떠한가요?

IV. 학교상담사의 자녀양육 이야기

1. 주은지의 이야기

1.1 상담사의 생애초기 부모-자녀 관계 경험

‘가정폭력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어린 시절’

주은지는 시골에서 소작농을 하는 부모 밑에서 동생 셋과 함께 호미를 쫓 수 있을 때부터 밭에 나가 일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가정폭력이 심했던 아버지로 인해 엄마가 집을 나가 버릴까봐 두려움에 떠는 날들이 많았기에 부모가 시키는 농사일을 돕고, 집안일을 잘하고자 애썼다. 시험기간에 밭에서 일하다가 학교나 도서관으로 공부 하러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다.

“늘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할 수 있다면, 다른 친구들처럼 참고서를 구입하여 공부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부모가 되면 내 자식이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이를 갈았죠.”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았던 주은지는 하교 후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여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중학교 국어교사의 꿈을 위해 합격한 대학마저도 가정형편상 등록금을 낼 수 없어 포기하고 바로 집을 나와 취업 하였다.

1.2. 자녀양육 경험

1.2.1. ‘양육태도와 독박육아로 인한 어려움’

주은지는 자신의 아이들은 내 부모처럼 자식을 욕되게 하거나 폭력을 휘둘러 공포감을 느끼게 하거나, 자녀로 하여금 하고 싶은 것도 알아서 포기하게 하는 무능력한 부모는 되지 않겠다는 자녀양육에서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 자녀양육과정에서는 조금이라도 엄마가 정한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목소리를 굵게 하여 이름만이 아닌 성까지 합쳐 엄하게 부르며 제지했다.

“!O!O!, 엄마가 그만 하라고 했지! 더러운 것 주워 먹지 말라고 했지! 문 열지 말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뭐해라, 뭐해라. 제자리에 뭐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제제를 많이 하며 키운 것 같아요.”

또한 집안은 늘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고, 옷이 더러워질 새 없이 청결을 유지하는 일상을 보내다 보니 주은지는 자녀를 돌보는 시간보다 청소에 더 역점을 두는 시간이 많았다.

“이 모든 것은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몸이 힘들어도 강박행동을 계속했던 거예요.”

남편이 야간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 가사분담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늘 정리정돈하고, 치우며 완벽한 육아를 하고자 했던 스스로의 욕구와 성격적인 요소로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이명이 들리는 신경쇠약으로 홀로 신경정신과를 찾기도 했다.

1.2.2. '자녀양육에 혼신의 노력'

주은지는 자신이 원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심리·정서적 욕구, 신체적 욕구를 아이들에게 충족해 주고자 노력하였으며, 어머니로서의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주려고 애썼다. 삼시세끼와 간식에 정성을 들였으며 예절과 인사성을 강조한 교육으로 어디서나 칭찬받는 자녀로 키웠다.

“아이들은 일과가 정해져 있었어요. 어린이집 갔다 오면 간식 먹고, 자유롭게 놀다가 저녁 먹고, 거실에 아주 길고 큰 사무용 앉은뱅이 탁자에 자기가 할 것을 가지고 모여요. 저는 주로 공부를 하고, 아들은 학습지를 하거나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딸은 그림책을 보고... 자유롭게 평화로운 저녁시간을 보낸 것이 아이들에겐 자기 주도 학습이 몸에 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주중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를 성실히 마치면 주말에는 당연히 가족과 나들이를 나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 주고자 노력하였다.

1.2.3. '가장 격렬했던 갈등과 부적절한 양육'

주은지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자녀를 양육하던 중,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자 소소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참아라, 친구하고 싸우면 내가 이해하고 저 쥐라. 동생을 보살펴야 한다. 동생에게 양보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우리 아이가 먼저 잘못하지 않은 일도 저는 우리 애를 혼냈거든요.”

아직은 어린 자녀에게 어른스러운 판단과 행동을 요구하고 자신의 할 일은 알아서 척척 해내는 모범생을 요구했다. 성격적으로 유순하고 규범적이었던 성향에 처음에는 잘 따라주었으나 어머니의 강압과 훈육에 지쳐가며 마음속에 화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은 아들의 일기장을 보았는데 엄마에 대한 욕을 가감 없이 적나라하게 써서 하루에 한 번씩 담임 선

생님의 검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지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이 보는 앞에서 노발대발 하며 박박 찢었어요. 어디서 자식이 되어 가지고 엄마 욕을 써서 담임 선생님한테 보여 주냐고. 아이를 이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피함에 화를 낸 거죠.”

주은지는 그때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아이가 다시는 엄마하고 속내를 얘기 하지 않겠구나 싶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1.2.4. '양육태도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

주은지는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점에 오자 자격증 과정인 상담공부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자녀의 양육방식에 대한 자신의 현주소를 알아가며 많이 울었다고 한다. 자녀들에게 자신이 한 행동이 강압적이고, 독선적이었으며 얼마나 숨이 막힐 것 같은 지시들이었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감정적 교류에 있어서도 이성(理性)이 먼저 앞서는 어머니의 품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에 이런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미안했다. 이제야 용서를 구해 미안하다. 엄마가 무식하게 막말을 해서 마음에 상처로 남았다면 엄마가 사과한다. 너희들이 부족한 엄마를 만나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수시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마가 왜 저래? 이런 눈빛이더니 나중에는 또 미안하다고 하려고요? 괜찮아요. 라고 해주어 너무 고마웠어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더는 말이나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참아주고 기다려주기 위해 노력 하였으나 쉽지 않았다.

또한 주은지는 상담에 대한 진반적인 공부를 하면서 원가족에게서 받은 양육경험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강박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게 하였으며,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생각이 끊임없이 자신을 힘들게 했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1.2.5. '양육경험을 통해 배운 삶의 가치와 성장'

주은지는 상담을 접하고부터는 학생들과의 상담 장면에서 학생의 감정을 알아주고,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주는 것처럼 자녀에게도 상담공부를 하면서부터 대화하는 방법을 달리한 것들이 부모-자녀 관계를 좀 더 따뜻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늘 자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니 이렇다 할 트러블 없이 잘 자라 준 것 같다. 그래서 더 학교 학생들을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지지해주고 옆에 있어 주자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했다. 자신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여 대학교를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한 것에 대한 부분도 받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교부적응으로 학교 밖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다니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도할 때 버겁고 힘들어도,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자신을 이용하더라도 끝까지 놓지 않고 버텨주는 역할도 그에 대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했다.

양육경험이 없었다면 직업인의 입장으로만 학생, 학부모상담을 하며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이는 학부모를 비난만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양육경험을 통해 어려움과 좌절을 맛보지 않았다면, 현실 상황 때문에 적극적으로 삶에 대처하지 못하는 부모의 입장을 수용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녀는 양육경험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알아가며 성장하고 있었으며, 학교상담사로서 학생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내면적 힘을 얻게 되었다.

“우리 엄마는 괜찮은 분이셨다. 그리고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일치성과 진실성이 있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과 가정에서 자신들을 대하는 모습에 진실성이 있었다. 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것이 주은지의 삶의 목표이자 가치이다.

2. 호이경의 이야기

2.1 상담사의 생애초기 부모-자녀 관계 경험

‘사역 담당자라는 부담감을 안고 자란 어린 시절’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원을 운영하시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지켜봐온 호이경은 자신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랐다. 어려서부터 주관이 뚜렷했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데 거리낌이 없었으며 영특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교리 안에서 큰일을 할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기에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다.

“난 당연히 목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자랐어요. 물론 엄마는 기도원을 엄마와 같이 운영해 주길 원하시는 눈치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은 담당해야 한다는 것에 거부적인 생각은 해 본적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크면서 내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재목이 되나? 하는 근심을 가졌지. 부담감이 가끔 엄습해와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입장을 거부하지 못하고 성장하여 우연히 선을 보게 되었는데, 목회를 막 시작한 젊은 청년이었다. 인상도 괜찮아 보이고, 시부모님 될 분들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어쩌면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여기로 인도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서 결혼을 결심했다.

2.2 자녀 양육 경험

2.2.1. '양육자의 성향에 따른 양육태도'

호이경은 자신을 표현 할 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게 키웠다. 성격적인 면도 있었지만 목회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신앙적으로도 모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의의 시선 때문이기도 했지만 호이경만의 틀이 있었던 것 같다. 규범적인 자신의 성향이 자녀양육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으며 아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음을 어느 순간 볼 수 있었다.

“어머 세상에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한 엄마가 없었던 거야.

너무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삶의 모토대로 아이를 너무 막 몰아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목회자 가정이니가 목회자에 삶을 이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라 친척들은 물론이고.”

호이경은 자신의 명령조 언어구사나 돌려서 말하는 강요를 들으며 아이가 느꼈을 억압과 답답함이 이제는 미안하게 생각되었다. 자신이 어린시절에 사역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위의 시선으로 부담에 혼란스러움을 겪었었기에 자기 자식에게는 그런 부담감을 주고 싶지 않았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분위기가 아이에게 종교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부모를 이어 목회의 사역을 담당하라고 무언의 압력을 받았을 어린아이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게 하였다.

2.2.2. '작은 교회 사역이 자녀양육에 미친 영향'

호이경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아들 또래 학생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다는 학생들도 브랜드 옷과 브랜드 신발을 신는데,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고, 검소한 성품을 지녔던 호이경은 중학생 아들에게 시장에서 구입한 옷과 아빠의 와이셔츠를 물려 입혔다. 품이 아빠와 비슷한 체격이라 가장만 잘라서 수선해 주면 교복 와이셔츠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아들도 아무런 티를 내지 않아 괜찮은 줄 알았다.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서야 막 울면서 ‘쉽했다, 속상했다, 내가 친구들에게 얼마나 쪽팔렸는지 아느냐?’ 그러는 거야.”

시간이 지난 뒤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된 호이경은 ‘얼마나 창피했을까?’ 아들의 입장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다. 요즘은 아들이 ‘늘 아끼고, 아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자라면서 보고 들은 것들이 아들에게 영향을 미쳤나 싶어 마음이 아프다.

2.2.3. '부모 맘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행동'

호이경은 말썽을 피워 부모와 교사의 걱정거리가 되

고, 지각하고 학교 규칙을 어기는 학생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는 외아들을 양육하면서 부모의 뜻대로 바람직하게만 자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작은 학교지만 월등히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어려서부터 잘하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재주도 뛰어나 교회에서 드럼 연주로 찬양을 주도하던 듣직한 아들이 시내 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여 기숙사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대견하고 흡족하였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숙사를 몰래 빠져 나와 당구치고, 수업을 빼고 만화방에 가고, 불량해 보이게 머리를 반삭하고 나타나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반삭을 하고 나타난 아들이 꼭 조폭 같았어요. 기가 막혔죠. 부모로서 만류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성적은 맘에 못 미치고, 참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놔두었어요. 그러다 돌아오겠지 싶어서, 할 것 다 해보고 돌아오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호이경으로 부터 학교상담 장면에서 학생들을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며 학생들을 상담하는데 진심으로 다가가게 했다. 자신이 자녀를 키우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살아 온 연륜이 있어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 같다. 이런 일련의 경험들이 학교상담사로서 학생들의 삶의 모습이나 생활 태도를 보며 자신의 자녀가 ‘그때 그랬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자녀도 ‘이런 마음을 가졌었겠구나.’ 하며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2.2.4. '든든한 조연자 아들'

호이경은 학교 상담과정에서 교권침해를 하거나 어른과 사회에 반항성 모습을 보이는 학생을 상담할 때에는 자녀에게 조언을 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은 어떤 느낌을 받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해 주기를 바랄까?’ 하는 질문을 통해 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했다.

“엄마의 질문에 자신이 그 시기에 겪었던 상황이나 생각을

을 떠올리며 ‘그냥 내버려 두기를 바라는 것이 중 고등학교 시기의 학생들 마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젠 아들이 먼지’엄마를 어렵게 하는 학생들은 없나?’고 물어봐 줘요.”

놀랍게도 자녀가 조언해 주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일치했으며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보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는 지난 날 자녀에게 그렇게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계기도 같이 가질 수 있었다.

2.2.5. ‘자녀양육 경험을 통한 행복한 학교상담사’

호이경은 학교상담에서 가장 답답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은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갈등이었다고 한다.

“대부분 부모 자녀 간에 일어난 갈등 중에서는 엄마하고 갈등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아빠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버지의 술이나 도박, 폭행 같은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 엄마가 자녀를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지도하거나, 내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바른 양육태도를 갖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도 잘 하고 계신다.’라고 칭찬을 해 주고, 지지를 해주고 나서’거기에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려요.”

호이경은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희망을 깨트리고 싶지 않다고 한다. 상황과 부모-자녀의 특성이나 양육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이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선불리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학생 상담에서도 학생의 장점을 먼저 이야기 해 준다. 단점을 보기 보다는 칭찬을 먼저 해준다. 학생들도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더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좋은 쪽으로 쏟아주는 상담을 한다. 그러다 보니 자녀양육과 학교상담사로서의 지나 온 삶을 돌이켜 보면 의미 있고 매순간 최선을 다한 행복한 순간이었다.

“난 학교에서 근무하는 게 좋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이만한 상담의 보고가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는 목회를 하고자 전도사로 서울에 있는 아들이 학생부를 맡고 있는데 상담적으로 서로 물어보고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 아들과 공통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호이경은 학교로 출근하는 지금도 만족하지만, 앞으로 자신이 만들어 갈 미래가 기대된다고 한다.

V. 학교상담사의 자녀양육 경험의 의미

본 장에서는 학교상담사들의 삶과 경험을 따라가며 그들이 자녀양육 과정에서 겪었던 삶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학교상담사로 자녀양육 경험과 학교 상담 장면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통찰한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1. 통찰(通察): 새로운 시점에서 바라보기

학교상담사들은 자녀양육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자녀양육을 재경험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원가족과의 경험들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게 하려고 강박적으로 행동하며 절대 자신의 부모처럼은 키우지 않겠다는 방식이 폭력만 가지지 않았지 훈육으로 꼼짝 못하게 했으며, 사역을 담당 하라는 무언의 강요로 자신도 힘들었으면서 자녀에게도 변형된 형태로 답습하고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자신이 원하던 것과는 다른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했고, 그로인해 어떤 결과에 봉착했는지 통찰함으로써 한 단계 확장 성숙해 가고 있었다.

2. 반성과 사과

학교상담사들은 상담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이해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면서 자녀와의 갈등을 분석해 보고 원인을 파악하면서 부모의 양육태도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학교상담사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과정을 거쳤다.

3. 충분히 좋은 양육자 되어가기

상담공부를 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민감한 반응의 배경에는 학교상담사들이 어린 시절 충분히 양육 받지 못한 결핍을 내 자녀에게 보상에 주고자 하는 측면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양육자의 모습을 갖추고자 진정한 좋은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일까? 고민하며 Winnicott의 말처럼 '안아주고, 공감해 주고, 반영해 주고, 견여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해 나가면서 자녀와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경험들을 만들어 갔다.

이런 변화를 통해 자녀를 충분히 존중하며, 유연한 사고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해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자녀와 관계를 맺으며 '충분히 좋은 양육자 되어가기'를 하고 있었다.

4. 진정한 상담사로 거듭나기

상담자의 인격적 성숙으로의 변화는 '진정성'을 의미한다. 진정성이란 진실 되고 참된 성질로, 상담자로서 내적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다. 이는 내담 학생의 학부모 상담을 현실적인 양육의 공감적 반응과 조언으로 어머니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통해 여유를 찾게 해주려는 노력을 실천해 가고 있었다. 이런 과정은 새로운 변화나 경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상담사로 거듭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다.

5. 온전히 기능하는 나

학교상담사는 '왜 나는 상담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했을까? 내 자신의 욕구와 동기는 무엇인가?'를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물어보았다. 자신의 가치관은 무엇이며 그 가치관이 상담장면에서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신의 잠재력은 무엇인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늘 성찰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런 탐색은 전문적인 학교상담사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솔직함과 진실성은 '온전히 기능하

는 나'로 나아가는 일이며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수단이 되었다.

다음은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 안에서 본 '양육 경험의 결과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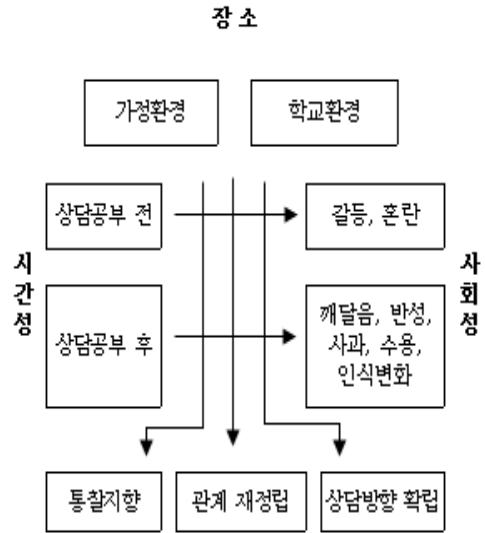


그림 1. 학교상담사의 자녀양육 경험 결과 구조 도식

VI. 내러티브를 마치며

1. 연구결과의 요약

두 여성 학교상담사의 자녀양육 경험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상담공부 전과 후의 개인의 심리적 차원의 변화를 볼 수 있었으며 둘째, 상담공부 후 양육태도의 변화를 들 수 있었다. 셋째로는 자녀양육 경험이 학교상담 장면에서 가져 온 변화로 요약할 수 있었다.

먼저 학교상담사들의 자녀양육 경험이 상담공부 전과 상담공부 후로 뚜렷한 변화가 있었음을 내러티브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경험하는 개인 심리적 차원에서 상담공부 전과 상담공부 후로 나누어 '행동적 차원', '신체적 차원', '정서적 차원', '인지적 차원'으로 탐구하였다.

주은지가 자녀양육 경험에서 보여준 개인차원을 살

퍼보면 ‘행동적 차원’에서는 상담공부 전에 심각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키우고자 청소와 정리정돈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였으며, 정해진 역할의 수행과 자녀의 성장을 위한 활동에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강압적인 행동과 훈육이 잔소리로 나타나 자녀를 힘들게 하였다. 그러나 상담공부 후 양육 경험에서는 자녀에게 양육태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자녀양육 경험을 토대로 학부모를 상담하고, 학생들을 변호해 주는 상담자가 되고자 하였으며 상담실애와 있게 하여 보호해주는 태도로 변화해 있었다. 다음으로 상담공부 전 ‘신체적 차원’에서는 독박육아의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이 날카롭고, 이명이 들리는 등 심신이 지쳐있었다. 그러나 상담공부 후 상담 장면에서는 에너지를 집중해서 상담하였으며, 학교상담사로서 좀 힘들어도 무조건적 존중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변화된 모습이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서적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상담공부 전에는 자녀에게 억울한 감정을 갖게 하고, 일기장을 찢으며 노발대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경험은 상담공부 후 자신의 자녀를 유하고 넉넉하게 양육하였으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자신의 자녀라 귀하게 여기고 지지해 주는 태도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지적 차원’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상담공부 전에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적 사고로 예절과 인사성을 강조한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의 교육에 대한 남다른 가치를 가지고 양육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부모의 바람대로 따라주지 않는 자녀에 대해 내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상담공부 후에는 자녀에게 부정적 양육태도가 있었음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계기를 가졌다. 그러면서 자신이 자녀에게 받은 감사함을 학생들에게 돌려야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 참여자 호이경이 자녀양육 경험에서 보여준 개인차원을 살펴보면 ‘행동적 차원’에서는 상담공부 전에는 자녀에게 명령조 언어구사로 강요를 하거나, 강요가 아닌 것처럼 둘러서 말하는 양육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상담공부 후에는 자녀가 속상했

다고 기억하는 과거 상황에 대해 붙들고 울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한 경험은 학교상담사로서 학생들을 상담할 때 아들에게 조언을 구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상담을 하였고, 뚜렷한 효과를 보았다. 다음으로 ‘신체적 차원’에서 상담공부 전에는 아들에게 목회의 사역을 담당하는 자가 되라고 무언의 압력을 주던 호이경은 상담공부 후에는 자녀가 느꼈을 부담감을 생각하며 그런 행동을 멈추었으며, 학교상담사로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학생들을 거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상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서적 차원’에서는 상담공부 전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아빠 와이셔츠를 아들에게 물려 입혀 아들을 속상하고 창피하게 하였지만, 상담공부 후에는 얼마나 창피했을까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차원’에서 상담공부 전에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자신을 표현하며 자신의 방법대로, 삶의 모토대로 자녀를 막 몰아가는 양육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상담공부 후에는 그런 태도가 엄마에게는 최선이었으나 아들에게는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그런 양육태도에 아들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알아차림이 있었다. 또한 아들을 양육하면서 부모의 뜻대로 바람직하게만 자라주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상담사로서 학부모를 상담하고 있으며, 아들 또한 부모가 강요해서가 아닌 자신이 원해서 선택한 삶을 살길 원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학교상담사의 자녀양육경험은 원가족에게서 받은 상처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란 환경 때문에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양육이 진정한 양육이고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많았다. 또한 자녀가 가 주었으면 하는 길을 정해 놓고 교묘하게 몰아가는 양육태도를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성향에 따라 어린 자녀에게 엄격함과 주입식 양육태도로 훈육하는 어머니였다. 어린 자녀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양육태도를 보여 자녀들을 힘들게 했으며, 일관되고 진실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도 많아 자녀들에게 반감을 사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담공부를 접하면서 자신의 양육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자녀들에게 지난날의 행동들

을 사과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기다려주는 어머니로 변화하였다. 자녀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어머니가 조금씩 생각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자녀양육 경험을 통해 학교상담사로 근무하며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상담하며 자녀를 더 이해하게 되었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허용적이고 지지해 주는 양육태도로 부모-자녀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학교 학생들을 상담함에 있어서 자신의 자녀라는 입장에서 접근하여 상담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으며,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진실성 있는 학부모 상담을 할 수 있게 변화되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며 자녀의 등대가 되어주고 응원하는 어머니로, 학교에서는 사명감으로 푹푹 뭉친 상담 마인드를 장착한 학교상담사로 온전한 자신과 삶이 하나로 통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양육자의 자녀양육 경험과 차별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2. 연구의 의의

학교상담사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학교에서 자녀 또래의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는 학교상담사의 자녀양육을 통해 '충분히 좋은 양육자'가 되어가는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과정을 탐구해 보고 의미를 도출해내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학교상담사의 자녀양육 경험을 들여다봄으로써, 학부모 상담시 부모와 관계에서 역전이를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는데 이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역전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셋째, 잘 해내고자 하는 직업적 '유능성의 욕구'를 내려놓고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온전히 기능하는 나'로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겸비한 상담사로 거듭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교상담사의 자녀양육 경험 내러티브 탐구라는 방법을 통해 연구자의 자기반성과 성찰에서 연구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

라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과 양육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양육방식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자녀양육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삶에 변화를 주었음을 알아차리는 기회를 제공 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3.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본 학교상담사의 자녀양육 경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자가 살고 있는 충남 ○○시의 중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상담사 두 명을 대상으로 연구 하였으므로 모든 중학교 상담사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또한 학교상담자들이 밝혀 준 삶의 질은 주관적 지표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한계가 있기에 학교상담사에 대한 연구는 사례별 독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상담사를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자녀의 실제적 내면을 들여다보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자녀의 내러티브도 함께 진행하여 통합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일치성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며 학교상담사 가족에 대한 이해를 넓혀 줄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청소년의 자녀를 둔 학교상담사들의 양육경험이라는 시기적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참여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학령기 전·후의 자녀를 둔 학교상담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의 자녀를 둔 학교상담사의 양육 경험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참고 문헌

- [1] 임현숙, "사춘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부모 교육 요구도에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이 미치는 영향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2호, pp.202-214, 2017.
- [2] 류소영, *빈곤한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 브 탐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3] 최은선,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여고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4] 이영애, “자기위로능력이 청소년상담사의 직무환경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1호, pp.240-241, 2015.
- [5] 김한별, 최형미, “중등 여교사의 삶에서 ‘엄마됨’ 경험의 의미,” *한국교원교육연구회*, 제33권, 제4호, pp.1-22, 2016.
- [6] 구하영, *자녀양육을 경험한 초등학교 교사의 교사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7] 이항순, *엄마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8] Chen Xiaoxia, *Narrative inquiry of the Parenting Experiences of Chinese immigrant Parents in the U.S*, Boston College University, 2013.
- [9] 임진영, *놀이치료자의 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10] 최재혁, 김명화, “두 여성의 상담자로서의 진로 전환 경험이야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6호, pp.514-526, 2017.
- [11] 박서정, *가족세우기 애도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선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12] 민서정, *연애결혼 이민자 여성의 양육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13] D. J. Clandinin and F. M. Connelly,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역, 교육과학사, 2007.

저 자 소 개

최 은 주(Eun-Ju Choi)

정회원



- 2015년 2월 :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석사)
- 2018년 2월 :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통합의학 가족상담(박사수료)
- 2011년 3월 ~ 현재 : 학교전문상담사

<관심분야> : 부모-자녀 교육, 가족상담, 청소년상담